"아빠 役 상상도 못했죠"… 멜로에 부성애까지 담아

스타인터뷰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지섭

보는 사람이 즐거운 작품 위주 선택
행복한 사랑 주제 영화 많아졌으면
'좋은 배우'·'좋은 사람'으로 남고파

"멜로 퀸과 함께 호흡을 맞췄으니까 저까지 멜로 킹이라고 하는 거지, 예진 씨가 없었다면 그런 수식어가 있었을까요?(웃음) 좋은 기운을 주는 배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크든 작든, 본인의 위치에서 모든 기량을 쏟아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배우.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고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로 연기를 대하는 배우 소지섭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스크린에 나섰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동명의 일본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 수아(손예진)가 1년 뒤 장마가 시작되는 날 기억을 잃은 채 우진(소지섭) 앞에 나타나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멜로다. 작품은 14일 개봉 직후 꾸준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실 그동안 멜로영화가 극장가에서 드물었던 이유는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장르영화 사이에서 흥행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소지섭과 손예진 주연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보란듯이 예상을 깨부수고 순항중이다.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받고 거절했었어요. 제가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역할을 해야한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출연이 민폐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제가 마침 따뜻한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이 아름다운 멜로였다는 점이죠. 국내 멜로시장이 넓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잘돼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 주제의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군함도'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도'와 '회사원' 등 영화에서는 늘 강인하고 센 캐릭터를 위주로 맡아왔던 소지섭에게는 몸을 써야하는 액션보다 멜로 연기가 더 어렵다. 눈빛으로 섬세한 감정연기를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영화에서는 여주인공과 애틋한 사랑 감정 외에 부성애도 연기했다.

소지섭은 "감독님이 많은 귀감이 됐다. 실제 한 가정의 가장인 감독님의 사랑 방식이 영화에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족분들이 자주 왔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호흡을 맞춘 손예진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자'라고 엄지를 세웠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속 우진이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이다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만약 에너자이저같은 아들을 낳는다면 같이 놀아줄 체력이 될까 걱정이 앞서요. 극 중 갓난아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찍은 씬이 있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조그마한 생명이 전해주는 느낌이 묘했어요."

애틋한 눈빛과 부드러운 매력을 장착한 소지섭은 누구보다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우진을 제대로 소화해 극장을 나서는 순간까지 관객들로 하여금 '우진앓이'하게 만들 것이다. 최근까지 남성적인 캐릭터를 해왔던 소지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작품 고르는 기준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작품 속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중요시했다면 최근에는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영화' 위주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꼭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시나리오 속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캐릭터의 비중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어요. 캐릭터만 좋다면 도전하고 싶죠. 평소 해본 적 없는 악역도 해보고 싶어요. 막무가내 악역 말고, (악해진)이유가 있는 악역이라면 탐날 것 같아요.(웃음)"

1995년 모델로 데뷔한 소지섭은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주군의 태양' 영화 '사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깊은 캐릭터들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대중에게 깊이 각인됐다.

소지섭은 "데뷔 초에는 치열하게 살았다. 돈 벌기 위해 연기를 했고, 점점 연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며 "'발리에서 생긴 일'을 찍으면서 연기가 재미있다고 느꼈고, 잘해야겠다고 본격적으로 생각한 건 '미안하다, 사랑한다' 때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 '이제는 올라가기 보다 잘 내려오고 싶다'라는 말을 담담하게 꺼내 기자를 놀라게 했다.

"배우로서 어느 위치까지 잘 와있다기보다는 아직도 방향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또 천천히 내려가고 싶고요.(웃음) 저는 사실 인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좋은 배우',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만족해요."

끝으로 소지섭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가슴은 따뜻하고 미소짓게 만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촉촉하게 나오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2018년 모두의 심장을 두드리는 단 한편의 감성 멜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절찬상영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사진/피프티원케이

박인비, 세계랭킹 9위… 통산 20승 도전

'골프 여제' 박인비(30·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1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세계 랭킹 9위에 올랐다. 정상급 기량을 재확인한 박인비는 이제 통산 20승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막을 내린 LPGA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 이후 1년 만에 투어 대회를 제패한 박인비는 투어 통산 19승째를 달성, 지난주 세계랭킹 19위에서 이번 주 9위로 뛰어 올랐다.

박인비가 세계 랭킹 10위 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 10위를 달성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박인비는 오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LPGA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에 출전해 2주 연속 우승 및 통산 20승을 노린다.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 19승을 거둔 박인비는 지난 2010년 창설된 이 대회에 올해까지 9회 연속 출전한다. 박인비의 이 대회 종전 최고 순위는 2010년과 2016년 거둔 준우승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20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단 한 번뿐이고, 지난주 파운더스컵을 통해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보여준 만큼 이번 대회 성적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다.

/김민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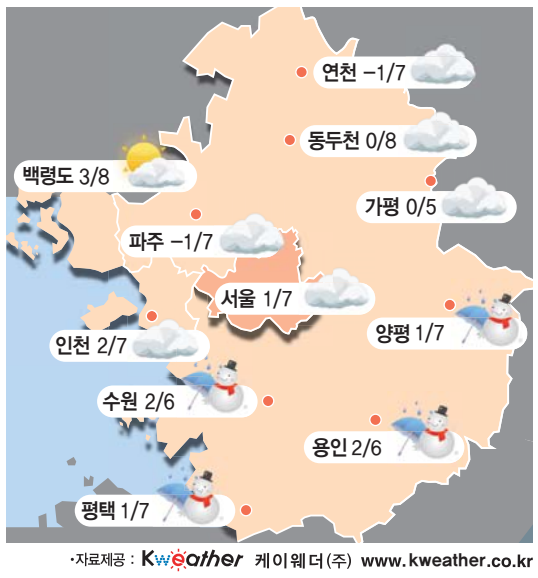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35 | 해짐 / 18:44

3월 21일 음력 : 2월 5일

수도권 날씨 1 ~ 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워너원, 막말에 비속어… 논란 일파만파

컴백 당일 '스타라이브' 앞두고
마이크 켜진 채 부적절한 발언
공식사과문 게재… 논란 여전

그룹 워너원. /손진영 기자 son@

그룹 워너원이 때 아닌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컴백과 함께 쏟아진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너원은 19일 오후 6시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돌입했다.

타이틀곡 '부메랑'을 앞세운 워너원은 이번 컴백을 '황금기'를 열어갈 시기로 지목하며, 일찌감치 대대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5일 선공개곡 '약속해요'로 주요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화려한 컴백을 알렸던 터라,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았던 상황.

그러나 논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컴백 당일 오후, 엠넷닷컴 인터넷 방송 '스타라이브' 진행을 앞두고 있던 워너원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눴다.

멤버들은 정산과 관련해 "왜 우리는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정산을) 20%만 받는가"와 같은 발언을 비롯해 잠을 잘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된 발언은 따로 있다. "아침에 X 쌌다"를 비롯해 "미리 욕해야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이 터져나온 것. 특히 한 멤버는 성적 은어를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영상은 방송 직후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에 워너원과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이하 YMC)는 팬카페와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YMC 측은 "라이브 방송 준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유포된 일부 영상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말까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발 빠른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과 이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워너원이 인기 그룹인 만큼 이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실망감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논란 이후 음원 성적도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다. 타이틀곡 '부매랑'은 발매 다음날인 20일 오전 7시 기준 멜론·엠넷 등 2개 음원사이트 차트 1위에 올랐다. 이어 소리바다·벅스·네이버뮤직 2위, 지니·올레뮤직 3위에 차트인 했다.

지난 5일 발매한 선공개곡 '약속해요'가 이튿날 오전 8시 기준 7개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것과 견주어 볼 때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앞서 논란을 겪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워너원이 음악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때다.

/김민서 기자 min0812@